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

권영주*

1.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 4:12에 인용된 이사야 6:9-10의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마가복음 해석의 대표적 난제이다. 이 때문에 후커(M. D. Hooker)는 “이 구절은 아마도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논의된 구절일 것이다”라고 논평한 바 있다.¹⁾

마가복음 4:12는 ἵνα절을 이끌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목적절로 해석되어 왔다. 예수가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막 4:11) 목적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막 4:12)는 것이다.²⁾ 목적절로 해석할 경우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이 외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이는 외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독법에 동의하지 않는 해석자들은—대체로 그러한 해석자들은 마가복음 4:12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answer.is@gmail.com.

1)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125. 말리나(B. J. Malina)와 로어바흐(R. L. Rohrbaugh)도 비슷한 논평을 한 바 있다. B. J. Malina and R. L.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161.

2)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개역개정』 번역을 따른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³⁾—새로운 해석을 제안했다.⁴⁾

마가복음 4:12의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ἵνα절의 용례에 집중했다. 목적절을 옹호하는 해석자들은 ἵνα절이 목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며, 1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μήποτε의 용례⁵⁾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목적절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학자들은 ἵνα절이 다양한 이유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이러한 그리스어 문법과 언어적 논의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수렴되거나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만나지 않는 평행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그리스어 문법과 언어적 논의에 기대어 마가복음 4:12의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주요 주장과 근거들을 반복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이전 연구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세 영역, 바로 (1) 이사야의 원문맥, (2) 마가의 이사야 본문 사용, 그리고 (3) 마가복음의 문맥을 연구함으로써 이 문제의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한다.

어번(D. V. Urban)은 자신의 논문에서 ἵνα절이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소개한 뒤 신중한 발언을 덧붙인다. “우리는 ἵνα가 고전 그리스어(Classical Greek)에서는 아니지만 헬레니즘 그리스어(Hellenistic Greek)에서 결과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음을 처음부터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우였으며 그럴 듯한 이유 없이 마가복음 4:12를 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어번의 발언에 대해, 본 연구자는 “그럴 듯한 이유”가 위의 세 가지 영역을 연구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ἵνα절이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될 때 예수의 비유 사용 의도와 부합하며 마가복음의 전체 논조와도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이사야의 원문맥을 살펴본 뒤 마가가 이사야의 구절을 어떻게 변형했는지 관찰한다. 3장에서는 4:12의 결과절 해석이 가깝게는 인접문맥과 그리고 멀게는 마가복음의 다른 본문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앞선 장들의 주요한 논의들을 요약

3) J. Marcus,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99.

4) 다양한 해석적 입장에 대해서는 R. H. Stein, *Mark*,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209-210.

5) μήποτε 뒤에는 부정 목적절이 따라온다. BDAG 2번 의미 참조.

6)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2), 199.

7) D. V. Urban, “Obscurity and Intention in Mark 4:11-12: Jesus’ Parabolic Purpos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9 (2014), 122.

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2. 마가의 이사야 6:9-10 사용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신의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관행이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살려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변경에는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단어나 문장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본문에 없었던 표현을 첨가시킬 때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신약성서 저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2.1. 이사야의 원문맥

마가가 이사야 6:9-10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추적하기 전에 이사야의 원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야 6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다.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명을 받는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이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웃시야 왕의 죽음을 전후로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의 국제정세에 중요한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웃시야 왕이 죽기 몇 해 전에 디글랏 빌레셀이 앗시리아의 왕으로 등극한다.⁸⁾ 왕위를 차지한 디글랏 빌레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하여 서진 정복전쟁을 펼친다.⁹⁾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군사적 리더십이 탁월했던 웃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났었다라면 남유다 왕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웃시야 왕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한 요담을 왕으로 두고 있는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다.¹⁰⁾ 이사야 6장은 이러한 역사적

8) D. W. Baker, *Isaiah*,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s Commentary 4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09), Kindle edition, “Isaiah’s Commission and Message (6:1-13).” 웃시야 왕의 죽음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의 왕위 등극과 서진 정복전쟁의 연도를 특징하는 것은 어렵다.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176, 특히 각주 24를 보라.

9) D. W. Baker, *Isaiah*, Kindle edition, “Isaiah’s Commission and Message (6:1-13).”

10) J. N. Oswalt, *Isai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3), Kindle edition, “Text and Commentary on Isaiah 6:1-13.”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남유다 왕국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웃시야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왕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1-5장에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다방면으로 지적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 깨닫지 못”한다(사 1:3). 그들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7)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사 1:23) “살인자들”(사 1:21)이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인생을 의지했지만(사 2:18-22), 하나님은 그들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사 3:1; 사 3장은 이 주제를 전반적으로 상술).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사 5:24).

이사야 1-5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악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의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사 5:25).

이러한 심판의 분위기와 이사야 6:9-10의 어조는 잘 어울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전문맥인 이사야 1-5장에 대한 이해 없이 이사야 6:9-10만 독립적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선포는 한없이 모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심판의 메시지는 비록 모질지만 납득할 만하다.

심판의 어조가 분명한 이사야의 원문맥을 고려한다면 마가복음 4:12의 *ὕμια*를 목적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예수가 외인들에게 비유를 사용

한 것도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가 외인들에게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결국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한글 성경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ἴνα*를 목적절로 해석한다.

- 『개역개정』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 『새번역』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현대인의성경』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쉬운성경』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 『우리말성경』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공동』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¹¹⁾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의 원문맥이 심판 일변도는 아니다. 마가복음 4:12에 인용된 이사야 6:9-10의 인접 후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사 6:11-12).

11) 『공동』은 12절의 전반부를 이끄는 *ἴνα*를 목적절로 해석하지만 후반부(필자가 괄호로 표시한 부분)를 이끄는 *μήποτε*를 부정 목적절을 암시하는 단어로 해석하지 않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은 ‘아마도’의 의미를 반영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의 용례에 대해서는 J. R. Kirkland,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Mark 4:10-12 in Context”, *NovT* 19:1 (1977), 7; R. H. Stein, *Mark*, 210-211을 참조하라. ‘아마도’의 용례에 대해서는 BDAG의 ④번 의미를 참조하라. 도나휴(J. R. Donahue)는 이러한 용례가 고전 그리스어 이후(post-classical Greek)에 종종 발견된다고 논평한다. J. R. Donahue,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02), 141.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 자체였다면,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심판이 일시적이라는 이러한 진술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사야 6:13은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 자체가 아니었음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심판 와중에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사야의 다른 구절인 29:18과 35:5 역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심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준다.¹²⁾

마가복음 4:12의 $\dot{\iota}\nu\alpha$ 를 목적절로 해석하면 이사야 원문맥의 이러한 뉘앙스를 전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담아낼 수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는 소거된다. 하지만 $\dot{\iota}\nu\alpha$ 를 결과절로 해석하면 이사야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결과절로 해석할 경우 마가복음 4:11-12의 의미는,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결과로’ 어떤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유를 듣고 이해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결과절로 해석하는 것은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해에 도달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혹은 땅의 비유)의 전체 논조와도 잘 어울린다.¹³⁾

마가복음 4:12의 $\dot{\iota}\nu\alpha$ 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이사야의 원문맥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마가가 이사야 6:9-10을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추적해 봄으로써 보다 여실히 드러난다. 2장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약 저자들이 구약성서 본문을 사용할 때 항상 친절하게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해석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구약의 원문맥의 어조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신약성서 저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약성서 본문에 변경을 가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마가의 이사야 6:9-10 사용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자는 마가의 변경 부분을 추적하면 $\dot{\iota}\nu\alpha$ 를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2.2. 마가는 이사야 6:9-10을 어떻게 변경했는가?

마가가 인용한 구약 본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크게 맞소리 본문,

12)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성경원문연구」 50 (2022), 100.

13)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칠십인역, 탈굄으로 나뉜다—학자들 간에 의견이 불일치한다. 이 때문에 세 가지 본문과의 차이점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⁴⁾ 이전 연구와의 증복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몇 가지 유의미한 변경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러한 변경이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입장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맛소라 본문, 칠십인역과 비교했을 때 마가의 가장 유의미한 변경은 동사의 형태이다. 맛소라 본문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사야 6:9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 “보아라”고 명령한다. 또한 이사야 6:10상반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명령한다. 명령형의 동사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밑줄 친 동사들은 모두 히필 형태다.¹⁵⁾ 히필 동사가 원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¹⁶⁾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남유다 백성들이 완악해지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표현한다.

만약 이사야 6:10상반이 마가복음 4:12의 인용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ἵνα*를 목적절로 해석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사야 6:10상반에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4:11-12에서 예수가 외인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야 6:10상반이 마가복음 4:12의 인용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마가의 변경은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에 논증의 무게를 실어준다. 인간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을 질게 풍기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마가는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 자체가 외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암시했던 것이 아닐까? 스타인(Robert H. Stein)의 말마따나 “만약 4:12가 ‘외인들’의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14) 마가복음의 이사야 인용과 각 구약 본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C. A. Evans, *To See and Not Perceive: Isaiah 6.9-10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JSOTSup 64 (Sheffield: JSOT Press, 1989), 53-76, 91-106을 참조하라. 좀 더 간략한 버전을 위해서는 김선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막 4:12; 마 13:13; 눅 8:10) 변형과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20:1 (2021), 79-90;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124-126을 보라.

15) 김선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 81.

16) B. M. Rocine, *Learning Biblical Hebrew: A New Approach Using Discourse Analysis*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0), 156.

감기게 하라’는 인용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있겠는가?”¹⁷⁾ 하지만 마가복음 4:12의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애초에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결과로’ 일부 사람들이 완악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칠십인역은 맛소라 본문에 비해 덜 강한 어조이지만 여전히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보여준다. 이사야 6:9의 맛소라 본문에서는 명령형이 사용되었지만 칠십인역에서는 미래 직설법 동사(ἀκούσετε, βλέψετε)가 사용된다.¹⁸⁾ 명령형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미래 직설법에서도 신적 주도권은 여전히 감지된다. 이사야 6:10의 맛소라 본문이 히필 동사의 사용으로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강조했다면, 칠십인역은 신적 수동태(ἐπαχύνθη)의 사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¹⁹⁾ 하지만 칠십인역에서는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에 대한 강조가 다소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맛소라 본문에서 히필 형태로 사용된 세 개의 동사가 칠십인역에서는 하나만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남유다 백성들을 주어로 한 능동태(ἤκουσαν, ἐκάμυσαν)로 사용되기 때문이다.²⁰⁾

하지만 마가는 칠십인역에서 이미 완화된 어조를 더욱 완화시킨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1) 법의 변화와 (2) 약화된 부정 표현이다. 첫째, 법의 변화는 직설법에서 가정법으로의 전환이다. 마가는 이사야 6:9의 칠십인역에서 사용된 미래 ‘직설법’ 동사(ἀκούσετε, βλέψετε)를 ‘가정법’ 동사(ἀκούουσιν, βλέπωσιν)로 바꾼다.²¹⁾ 이러한 변경은 어떤 함의를 지닐까? 칠십인역의 직설법 동사는 독자들의 듣고 보는 행위를 ‘기정사실화’하지만, 마가복음의 가정법은 독자들의 듣고 보는 행위를 ‘가능성’의 영역으로 밀어낸다.²²⁾ 마가의 이러한 변경은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독자들의 듣고 보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챙긴 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독자들의 듣고 보는 행위를 좀 더 ‘느슨하

17) R. H. Stein, *Mark*, 211.

18) 김선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 82.

19) *Ibid.*, 83.

20) *Ibid.*, 82-83. 여기서 김선옥은 두 개의 동사가 능동태로 전환된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막 4:12의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김선옥은 다른 여러 증거들을 고려한 뒤 ἵνα를 결국 목적절로 해석한다.

21)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101.

22) 가정법이 가능성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에 관해서는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61.

게' 남겨둔다.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할 때 훨씬 이해하기 쉽다. 만약 예수의 비유 사용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었다면(ἵνα를 목적절로 해석하는 경우), 마가가 신적 의도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직설법을 굳이 가정법으로 바꿀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약화된 부정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³⁾ 이사야 6:9의 칠십인역에서는 강한 부정(οὐ μὴ)—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남유다 백성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이 사용되었지만, 마가는 이를 좀 더 완화된 단순 부정(μὴ)으로 바꾼다.²⁴⁾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사야는 강한 부정을 통해 남유다 백성의 완고해짐이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강력히 시사한다. 반면, 마가는 강한 부정을 단순 부정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예수의 비유를 듣는 자들의 이해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열어둔다. 이러한 마가의 변경은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할 때 훨씬 납득하기 쉽다. 만약 예수의 비유 사용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었다면(ἵνα를 목적절로 해석하는 경우), 마가가 신적 의도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강한 부정을 단순 부정으로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절로 해석될 경우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사야의 강한 부정(οὐ μὴ)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2장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이사야 원문맥과 마가의 변경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사야 원문맥과 관련하여, 마가복음에 인용된 이사야 6:9-10만 보았을 때는 심판의 어조가 강하지만 인접 후문맥과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를 고려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ἵνα의 결과절 해석을 선호하게 만든다. 즉,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듯이, 예수의 비유를 들은 ‘결과’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이들도 존재할 것이다. 마가가 이사야 구절 인용 시 변경한 부분들도 ἵνα의 결과절 해석을 지지한다. 마가는 목적절 해석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을 과감히 삭제한다. 또한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드러내는 맞소리 본문과 칠십인역의 동사 형태나 부정 표현 방식을 완화시킴으로써 예수의 비유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

23)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101.

24) μὴ에 οὐ가 첨가되는 경우, 부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BDAG ④번 의미 참조.

을 던지시 암시한다.

3. 마가복음의 문맥

마가복음 4:12에 나타난 $\iota\nu\alpha$ 의 목적절 해석과 결과절 해석의 요점과 함의를 간단히 개념화하면 아래와 같다.

* 목적절 해석

요점: 예수가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함의: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 자체가 외인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외인의 심판은 확정적이다. 여기서 외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외인의 책임보다는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의 결과이다.

* 결과절 해석

요점: 예수가 외인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결과, 그들은 완악하게 되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함의: 예수가 비유를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사람들(“외인”)이 배제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외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보다는 외인의 책임(비유에 대한 반응과 수용성)의 결과이다.

이처럼 $\iota\nu\alpha$ 를 목적절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결과절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전혀 달라진다. 2장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원문맥과 마가의 이사야 사용이 결과절 해석을 지지함을 살펴보았다면, 3장에서는 마가복음의 인접문맥과 원격문맥의 증거들이 결과절 해석과 부합함을 증명할 것이다.

3.1. 마가복음의 인접문맥

마가복음 4:12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좀 더 정확히는 땅의 비유에 대한 예수의 설명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때문에 땅의 비유의 핵심주제와 논조를 파악하는 것은 마가복음 4:12의 $\iota\nu\alpha$ 의 용법을 확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수가 가르친 땅의 비유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씨를 뿌리는 자는 각기 다른 땅, 즉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 씨가 어느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씨의 결국의 모습이 달라진다. 뿌리를 아예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싹이 조금 나오다가 마른 것도 있으며,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도 있다.

땅의 비유를 말한 뒤 예수는 4:13-20에서 비유의 의미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주된 논점은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 결실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과 수용성이 말씀 이해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땅의 비유의 논조는 *ὅτι*를 목적절로 해석할 때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목적절 해석의 요점은 예수의 비유 사용이 처음부터 일부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에 대한 예수의 설명도 이러한 뉘앙스를 전달하지 않는다. 하지만 *ὅτι*를 결과절로 해석하게 되면 땅의 비유의 논조가 잘 드러난다.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결과 일부 사람들이 완고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 말씀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땅의 비유의 논조와도 잘 조화된다.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과 수용성은 땅의 비유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²⁵⁾ 땅의 비유에서 사용된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4:9에서 예수는 땅의 비유를 말한 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덧붙인다.²⁶⁾ 이 발언은 외인들을 애초에 배제하고 내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라기 보다는²⁷⁾ 비유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반응과 수용성의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타당하다.²⁸⁾ 땅의 비유 자체도 청자의 반응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땅의 비유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비유들도 이 주제를 변주하고 있다. 4:21-25의 등불의 비유는 등불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등불의 목적은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마가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 비유의 궁극적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⁹⁾ 4:26-29의 자라나는 씨 비유와 4:30-32의 겨자씨 비유도 동일한 주제를 전개한다. 자라나는 씨

2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198.

26) 이것이 예수의 직접 발화이든지 마가가 덧붙인 편집적 코멘트든지, 이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와 효과는 동일하다.

27)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249-250.

28) K. Snodgrass, “4 Ezra and Mark 4:1-34: Parables on Seeds, Sowing, and Fruit”, B. C. Blackwell, J. K. Goodrich and J. Maston, eds., *Reading Mark in Context: Jesus and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8), 74-75.

29) W. L. Lane,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166-167.

도, 겨자씨도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한다.³⁰⁾ 이 모든 비유들이 말하는 바를 종합해보면, 비유의 속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4:22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궁극적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다.³¹⁾ 만약 예수가 숨기고 감추기 위해 비유를 사용했다면(*ἵνα*의 목적절 해석), 제자가 아닌 자들(4:10, 함께 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4:33).³²⁾ 이처럼 땅의 비유 뿐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다양한 증거의 누적 효과는 *ἵνα*의 결과절 해석을 옹호한다.

3.2. 마가복음의 원격문맥

마가복음 4:12의 *ἵνα*의 결과절 해석은 신적 의도성보다는 청자의 반응과 수용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러한 주제들은 마가복음 4장뿐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관찰된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이슈는 외부인과 내부인이다. 마가복음에서 외부인과 내부인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유연한 위치다.³³⁾ 이러한 유연성은 독자들을 당황하게도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과 수용성을 자극하는 수사학적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외부인도 언제든지 내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30) D. E. Garland,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79.

31)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200; K. Snodgrass, “4 Ezra and Mark 4:1-34”, 74.

32)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ἐλάλει*가 미완료인 것을 감안하면 예수가 비유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B. Witherington III,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172. 예수가 비유를 여러 번 가르치는 것은 막 7:14-15에서도 발견된다. J. Marcus, *Mark 1-8*, 303. 미완료 동사가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용례에 대해서는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547을 참조하라. 미완료 동사의 다른 용례에 대한 최근 논의를 위해서는 C. R. Campbell,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2), 77-102.

33) 마가복음에서 외부인이 내부인으로, 내부인이 외부인으로 판명되는 것은 마가복음의 더 큰 주제인 아이러니와도 연관된다. 마가복음의 아이러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로는 J. Camery-Hoggatt, *Irony in Mark's Gospel: Text and Subtext*, SNTSMS 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가 있다.

외부인과 내부인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땅의 비유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다. 예수가 땅의 비유를 말했을 때 처음부터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리뿐 아니라 제자들도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제자들이 외부인으로 판명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의 비유를 이해했을까? 예수를 따로 찾아온 이들이다. 그런데 예수를 따로 찾아온 이들 중에는 제자가 아닌 이들도 있었다.³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4:10). 열두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의 비유를 이해하게 된다.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내부인으로 판명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패턴은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가복음 3:31-35에서 예수는 가족을 재정의한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외부인으로 판명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부인으로 밝혀진다.³⁵⁾ 이와 유사하게 마가복음 6:1-6에서는 예수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외부인으로 판명된다. 헤롯의 연회와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외부인과 내부인의 역전이 감지된다(막 6:14-44).³⁶⁾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막 6:21)은 예수의 종말론적 식탁에 초대받지 못하고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막 6:34)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인 반면(막 9:34),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막 10:52).³⁷⁾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때도 외부인과 내부인의 역전이 일어난다. 예수가 택한 열두 제자들은 예수의 공생애 사역 기간 내내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특히 예수가 자신이 고난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수난 예고를 세 차례에 걸쳐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마다 실패한다. 첫 번째 수난 예고 후 베드로는 사탄으로 몰렸고(막 8:33), 두 번째 수난 예고 후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막 9:34), 세 번째 수난 예고 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찾아와 재차 높은 자리를 요구한다

34) R. A. Culpepper,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137.

35) R. A. Guelich,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181.

36) 헤롯의 연회와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의 대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권영주, “마가복음 6:14-29에 예수는 부재하는가?: 샌드위치 구조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21:1 (2022), 131-162.

37)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331.

(막 10:37). 내부인으로 여겨졌던 제자들은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는 외부인으로 판명된다. 예수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³⁸⁾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이방인 백부장이 실상 내부인이었던 것이다.

외부인과 내부인의 위치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제는 이처럼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발견된다. 이러한 주제를 고려할 때 마가복음 4:12의 $\acute{\iota}\nu\alpha$ 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 자체가 애초에 외부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목적절 해석) 외부인과 내부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유연성을 담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외부인은 언제든지 내부인으로 판명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cute{\iota}\nu\alpha$ 를 결과절로 해석하면 이러한 유연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예수가 비유를 사용하신 결과로 일부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청자의 반응과 수용성을 강조한다. 이는 청자의 반응과 수용성에 따라 외부인이 내부인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내부인이 외부인으로 밝혀지기도 한다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와 잘 어울린다.

4. 나가는 말

본 논문은 ‘마가복음 4:12의 $\acute{\iota}\nu\alpha$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탐구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그리스어 문법과 언어적 이슈에 치중했다. 하지만 $\acute{\iota}\nu\alpha$ 를 목적절로 해석하는 견해도,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도 문법적, 언어적인 면에서 모두 나름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전 논의들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가복음 4:12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사야의 원문맥, 마가의 이사야 사용, 마가복음의 문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사야의 원문맥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가의 이사야 사용 연구를 통해 마가는 맞소리 본문과 칠십인역에 나타난 신적 의도성과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절을 변경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마가복음의 인접문맥과 원격문맥 연구를 통해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 독자의 반응과 수용성이 강조되고

38)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91.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ἵνα를 목적절이 아닌 결과절로 해석하는 견해가 문맥적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주제어>(Keywords)

예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이사야 6장, ἵνα.

Parables of Jesus, The Parable of the Sower, Mark 4, Isaiah 6, ἵνα.

(투고 일자: 2022년 5월 27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영주, “마가복음 6:14-29에 예수는 부재하는가?: 샌드위치 구조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약연구」 21:1 (2022), 131-162.
- 김선욱,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약 인용(막 4:12; 마 13:13; 눅 8:10) 변형과 신학적 의의”, 「신약연구」 20:1 (2021), 76-118.
- 신현우, “마가복음 4:12 번역: 비유의 목적인가 결과인가?”, 「성경원문연구」 50 (2022), 87-106.
- Baker, D. W., *Isaiah*,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s Commentary 4,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09, Kindle edition.
- Boring, M. E., *Mark: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2.
- Camery-Hoggatt, J., *Irony in Mark's Gospel: Text and Subtext*, SNTSMS 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ampbell, C. R., *Verbal Aspect, the Indicative Mood, and Narrative: Soundings in the Greek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Peter Lang, 2012.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Culpepper, R. A.,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 Donahue, J. R.,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2.
- Edwards, J. 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Evans, C. A., *To See and Not Perceive: Isaiah 6.9-10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JSOTSup 64, Sheffield: JSOT Press, 1989.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arland, D. E.,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Guelich, R. A., *Mark 1-8:26*, WBC 34a, Dallas: Word, 1989.
- Hooker, M. 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 Kirkland, J. R., “The Earliest Understanding of Jesus' Use of Parables: Mark 4:10-12 in Context”, *NovT* 19:1 (1977), 1-21.
- Lane, W. L., *The Gospel of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 Malina, B. J. and Rohrbaugh, R. L.,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2nd ed., Minneapolis: Fortress, 2008.
- Marcus, J., *Mark 1-8: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 New York: Doubleday, 2000.

Moloney, F. J.,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Oswalt, J. N., *Isaia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3, Kindle edition.

Oswalt, J. N., *The Book of Isaiah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Rocine, B. M., *Learning Biblical Hebrew: A New Approach Using Discourse Analysis*,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0.

Snodgrass, K., “4 Ezra and Mark 4:1-34: Parables on Seeds, Sowing, and Fruit”, B. C. Blackwell, J. K. Goodrich, and J. Maston, eds., *Reading Mark in Context: Jesus and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8, 69-76.

Stein, R. H., *Mark*,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Urban, D. V., “Obscurity and Intention in Mark 4:11-12: Jesus’ Parabolic Purposes”, *Calvin Theological Journal* 49 (2014), 122.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Witherington III, B.,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Abstract>

**Is the Hardening of People the Purpose or the Result of
Jesus' Use of Parable?:
Interpreting ἵνα in Mark 4:12**

Youngju Kw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article explores the following questions: How should we interpret ἵνα in Mark 4:12? Is it used as a purpose clause or a result claus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previous studies tend to focus on grammatical and linguistic issues. The problem is that both positions provide all convincing evidence and arguments. Thus, previous studies offer not much contribution to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meaning of ἵνα clause despite their usefulness. Since previous studies have come to a dead e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scholars should find different avenues of research to resolve this crucial interpretive issue. This article intends to fill this gap by studying three areas: (1) the original context of Isaiah, (2) Mark's use of Isaiah, and (3) the context of Mark.

Regarding the first area, it is true that the overall tone of Isaiah 6 and its previous context (Isa 1-5) is gloomy. In other words, the message of judgment is predominant. In light of this, it seems right to conclude that Isaiah 6:9-10 is to be interpreted as the message of judgment.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saiah's original context itself includes the message of recovery and hope. For example, Isaiah 6:11-12 indicates that the judgment is temporary rather than permanent. Further, Isaiah 6:13 explicitly states that God leaves the holy seed even in the season of judgment. With regard to the second area, Mark uses Isaiah in the way of de-emphasizing the divine intention and initiative expressed in MT and LXX. MT uses imperative verbs, implying that God takes initiative in the hardening of people. MT also uses hiphil verbs that have causal meaning. This gives the impression that God is responsible for the hardening of people. The uses of future indicative verbs and divine passive verb in LXX have the same effect. However, Mark 4:12 mitigates divine intention in the hardening of people by using subjunctive mood and avoiding reinforced negation(μὴ rather than οὐ μὴ). Concerning the third area, both immediate context and larger context of

Mark highlight audience's response and reception. If ἵνα is to be interpreted as a purpose clause in the sense that Jesus' use of parables intends to harden people's heart, Mark 4:11-12 may not cohere with the general tone of the rest of the chapter. Putting all these pieces of evidence together,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nterpreting ἵνα in Mark 4:12 as a result clause makes far better sense.